

I

권두칼럼



- 발행인 권두사006
- 채수원 |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원장
임태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 본부장

I. 권두칼럼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한 정보 제공과 에너지·환경 정책·기술 분야의 지식 공유”



채수원 |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원장

국제 원유가격은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대의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 미래 에너지원 개발 등 에너지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감안, 세계 모든 나라는 에너지를 국가정책의 중요한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6%를 상회하여 우리나라 총수입액의 1/3이 되는 우리로서는 보다 견실하고 다원화된 에너지정책의 추진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지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 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지만, 녹색 구조만 있었고 내실이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형식 추구 보다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 상황과 구조를 면밀히 조사·진단하고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에너지 현안인 전력 수급, 원자력 안전, 에너지 믹스 등 에너지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평가를 토대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 및 전략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전의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자원분야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에너지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개선, 에너지 절감 등과 같은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비중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상호 논쟁으로 여전히 확립적 평행선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 실정에서, 동 계획에서의 2035년 목표수치인 원전비중 29%, 신재생에너지 11%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슬기로운 대처가 요구됩니다. 원전 비중의 선택적 조정,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화,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 및 에너지복지의 활성화 등 동 기본계획에서의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기대해 봅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인 그린스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특히 에너지 기술과 정책이 접목된 건실한 사회인력 투입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국가 계획의 비전 및 과제와 적극 연계하고 그 범주를 크게 넓혀, 그린스쿨이 발간하는 『그린모니터(Green Monitor)』가 공히 국내외적으로 에너지·환경 기술·정책분야에 지식을 공유하는 매체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을 빌려 우리 그린스쿨대학원의 발전과 동 전문지 발간에 큰 관심과 도움을 주신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폭넓은 의견, 사랑어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원에 보답코자 앞으로도 보다 알찬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 그린스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o Won Cha

“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의 기술 연구개발 적극 추진과 융·복합연구의 기반 구축”



임태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 본부장

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중 산업국들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추격형 성장에서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현 정부는 국민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첨단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창의적 자산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 분야는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국가의 성장을 가져다 줄 큰 동력원입니다.

기존 동종 분야에서의 R&D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비중을 제고토록 연구진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종 분야의 연구진과 함께 활발한 융·복합연구를 추구하는 것 또한 신기술, 신산업 및 신시장의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는 이러한 융합연구기술의 대표적인 사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환경 분야 기술은 나노, 바이오 및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연구소 및 산업체가 공동으로 동종 및 융·복합 R&D기술 연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학연 연구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이 되어 특화전문대학원 연계 학연협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 설립한 우리 그린스쿨대학원이 바로 동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환경 기술·정책 융합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본 전문지 “그린모니터”는 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의 연구결과 및 동향을 전달하고자 그린스쿨에 소속된 교수진 및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값진 성과물입니다. 이번 제3호에는 지난 11월 그린스쿨이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의 성과를 특집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아태지역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모색: 기술과 정책 혁신”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저희 해외연구협력기관인 우수 대학 에너지 기술·정책 분야의 저명학자들을 초청해서 이루어진 열띤 토론과 폭넓은 이해를 결과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린모니터는 에너지·환경 분야의 산학연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최신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기술과 정책을 융합한 전문대학원인 그린스쿨대학원이 국내 최고 수준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톱 대학원으로 도약,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